

동풍(東風)·웨다(悅達)·기아자동차, 새 시대 질주

최근 바이두(百度) Apollo 플랫폼 DuerOS스마트 기술을 탑재한 뉴제네레이션 '포르테'가 전 세계 최초로 출시되었다. 이는 동풍·웨다·기아와 바이두가 협력해서 건설한 국내합작브랜드의 첫 번째 인터넷자동차이다.

엔청시 당위원회와 시정부가 실시한 전략은 새로운 목표를 확립하였다. 2020년까지 자동차 100만 대를 생산 및 판매하고 2025년까지 중국 완성차 선두그룹에 진입하는 것이다.

'난관 극복' 100만 대 목표 돌진
42,505대! 동풍·웨다·기아의 10월 판매량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9월에 판매량 4만 대를 돌파한 후 연속 5개월 전 분기 대비 증가를 실현

하게 되었다. 산업발전은 국가 전략과 호흡을 같이 한다. 비교적 일찍 '자동차시대'에 진입한 동부 연해지역은 한창 소비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동풍·웨다·기아의 고클리티 시리즈 승용차는 도시 젊은 중산층과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층을 겨냥하였다. 한편 중서부 지역에서 유행한 '가성비'를 보여줌으로써 넓은 시장을 확보하였다. 쓰촨, 안후이, 허난(河南), 산시(陝西), 신장(新疆) 등 서부 시장은 이미 새로운 성장점으로 부상하였다.

'100만대' 전략목표와 2025년 NTF전략·동풍·웨다·기아의 자신은 동서남북에 분포된 600여 개 중개상과 1,000여 개 밀집된 서비스센터로 구성된 방대한 판매망에

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중국 승용차의 '새 시대'에서 나오고 있다.

'터보엔진'으로 '큰 전성기' 누벼
차종의 막강한 동력은 터보엔진에서 나오고 있다. 동풍·웨다·기아는 3개의 '터보'로 발전을 '구동'하고 있는데 곧 품질, 혁신과 개혁이다.

올해 8월 동풍·웨다·기아는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종을 찾아 전시에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다. 신차로 낡은 차를 바꿔주는 방식인데 그 기준을 '100만km'로 정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광둥, 장쑤 등 몇 개 성에서만 주행거리 100만km를 돌파한 자동차 60여 대를 찾게 되었

는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자동차의 뛰어난 성능이 입증된 셈이었다. 최근에 발표된 2017년 중국자동차업계 객관만족도(CACSI) 평가에서 동풍·웨다·기아 산하의 K2, KX3, KX7 세 차종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1년에만 신차 6종을 출시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새 모델 2~3종과 개조형 모델 3~5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6종을 출시함으로써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 매트릭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무인자동차 대량 생산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원·원 공유 통해 자동차타운에서 꿈 실현
올해 들어 동풍·웨다·기아의 일련의 성과는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들은 중개상을 소집해 상품위원회와 상무정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두 위원회는 상징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다. 8월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KX CROSS의 원래 이름은 K2 CROSS였지만 중개상은 이들이 신차의 특징을 부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KX CROSS로 고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또 SUV요소를 추가해 자동차 새시를 150mm 높일 것, 리어스포일러를 장착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신차에

서 모두 구현되었다. KX CROSS는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11,786대를 판매하는 훌륭한 실적을 거뒀다.

'원카' 전략의 의미는 엔청에서 자동차 완성차, 부품과 서비스업의 '3개 1천억급'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장쑤의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데 있다. 연해지역 '자동차타운' 건설과 장쑤의 '완성차 꿈' 실현에 앞장선 동풍·웨다·기아는 반드시 장쑤의 자동차산업을 이끌고 새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新华报业传媒集团 主办
总第258期
联系电话:0086-25-58680903
E-mail: xhbw@xhby.net

欲知更多新闻, 请扫描右侧的二维码。
中江网英文频道




물의 장쑤 사진전
은행나무길

최근 은행나무 길이 흐르는 자허(佳和)공원을 온통 황금색으로 수놓아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는 아이들은 바깥에 흘날리는 은행나무 잎 속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다.



《회해극(淮海戲)을 체험하는 외국인 학생들》

최근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서 화이하이공과대학교에 유학을 온 30여 명이 련윈강시 회해극단의 젊은 배우들과 함께 중국 무형문화재보호 프로젝트의 하나인 련윈강시 지방회극 회해극을 체험하였다. 련윈강시는 교육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 2015년 현재의 대학교를 조직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였다. 화이하이공대는 협의를 통해 매년 키르기스스탄 민족대학교에 3개월간의 학생 교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련윈강시는 또 '실크로드 동방' 정부장학금을 설립하여 련윈강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2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행사 현장 모습.

발전기금 100억 위안, 사회자본 400억 위안 시너지효과 창출 난통(南通), 차세대 정보기술 청사진 제시

최근 국내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및 업계 엘리트 약 1,000명이 난통 차세대 정보기술박람회에 참가해 공동으로 차세대 정보기술의 청사진을 그렸다.

난통시 루즈펑(陸志鵬) 당서기는 난통의 전자정보, 스마트장비,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정보기술산업의 생산액은 이미 4,000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소개하였다. 화웨이(華爲), 중싱(中興), 랑차오(浪潮) 등 유명 통신기술기업이 난통에 입주하였고 테이더 송신부, 스마트 소프트웨어, 이미지·음성 인식, 특수 연산방식, 스마트로봇 등 신형

산업도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난통은 스마트칩, 감지 소자, 빅데이터, 5G통신과 VR 등 차세대 정보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문가 40개를 육성 및 유치하고 원사업이 이끄는 중국과학원 난통광전자공학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 6개를 설립하였다.

난통은 또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발전기금 100억 위안을 설치해 400억 위안에 달하는 사회자본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차세대 정보기술의 발전에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

당일 중국과학원, 화웨이, 알

리(阿里), 텐센트, 순펑(順風) 등은 난통시 정부와 중점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협의를 교환하였다. 중국공업정보화부 전임 부부장 양쉐산(楊學山), 중국과학원 원사이자 중국 센서 및 사물인터넷산업영사 사장인 왕시(王曦),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중국인공지능학회 이사장인 리더이(李德毅) 등 전문가 6명은 난통시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발전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북미 여행업체대표, '물의 고장 장쑤'에 큰 관심

최근 중국국가여유국, 중국민용(民用)항공국과 윈난성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중국국제관광교역회가 Kunming에서 개최되었다. 장쑤는 성(省)여유국과 성내 13개 도시 관광부문이 전시회에 참가해 '물의 고장 장쑤'의 특색을 전시하였는데 수많은 업계 인사와 시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국 뉴욕 등지 북미 여행업체 대표 15명은 '물의 고장 장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북미 여행업체 대표 15명을 초청해 '물의 고장 장쑤' 전시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장쑤성여유국의 아이디어로 그 목적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중국국제관광교역회 플랫폼을 통해 '물의 고장 장쑤'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장쑤 전시관은 주로 고전원림(古典園林), 작은 다리, 흐르는 냇물, 흰 배가 곱푸른 기와의 녹색생태 요소를 부각하였다.

설명회 현장에서 쑤저우시여유국 관계자는 북미 여행업체에 쑤저우 고전원림, 대운하, 물의 고장 등 장쑤 클래식 관광상품과 쑤저우 공단단지 진지호(金鷄湖)관광지를 대

표로 하는 현대 쑤저우를 소개하였다. 북미 여행업체는 또 초청을 받고 장쑤관광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첫 잔을 데우고 차를 깨우며(醒茶), 뜨거운 물로 차를 우리고 감상한다. 북미 여행업체 대표는 현장에서 장쑤 다에서의 다도공연을 감상하고 쑤저우 특색의 평탄(評彈)(풍교야박(楓橋夜泊))은 해외 수많은 여행업체 대표를 도취하게 만들었다. 미국 뉴욕 CIAC국제여행사의 로버트 선생은 전시회를 설치하였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귀빈이 관련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러시아, 미국, 유럽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의 527개 여행업체가 교역회에 참가하였다. 리종장·李崇長

장쑤성 긴급 뉴스

충청남도 교육단 장쑤 방문

최근 한국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주무관, 충청남도 순천향대학교 및 선문대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장쑤를 방문하였다. 장쑤에서 대표단 일행 3명은 난징, 쟈장, 엔청 등지를 방문하고 난징정보공정대학교, 장쑤대학교, 엔청제1중학교, 뤼수상(呂叔湘)중학교 등 학교를 찾아 학교 및 학생 간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였다.

한국 순천향대는 한국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설립한 사립 종합대학교로 50여 개 전공과 14개 연구기관이 있으며, 의학과 공학이 유명하다. 현재 중국, 캐나다, 미국, 영국 등 43개 국가의 170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선문대는 중·한 양국 교육부가 승인한 4년제 종합대학교이다. 2015년 한국 교육부의 평가에서 A등급(모두 34개)을 획득하였고 2016년에는 교육품질 최우수 대학교로 선정되었다. 2017년에는 또 국제화 교육인재대학에 재차 선정되었다고 한다. 장웨이창·張偉淸

장쑤 전국문명도시 17개

최근에 개최된 전국정신문명 건설 표창대회에서 장쑤는 다수의 도시와 마을, 기관, 학교, 도덕건설 선진 대표가 표창을 받았는데 정신문명 건설의 풍성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가 이번엔 표창한 도덕건설 선진 대표 중 장쑤는 대중성 정신문명 건설을 대표하는 문명도시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쑤첸, 쑤저우 2개 도시(設區市)와 단양, 이싱, 장인, 장수, 리양, 루가오 6개 현급시(縣級市)는 우수한 성적으로 제5회 전국문명도시로 새로 선정되었고 난징, 난통, 쑤저우, 양저우, 창저우, 쟈장, 우시, 타이저우 8개 도시와 장자강시는 재심을 거쳐 전국문명도시의 칭호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현재 장쑤는 모두 17개 도시가 전국문명도시 반열에 진입하여 중국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장쑤 전체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에 도달함으로써 중국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 국제의약기술대회 련윈강시 개최

최근 2017중국(련윈강) 국제의약기술대회가 항구도시 련윈강에서 개최되었는데 국내외 유명 전문가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약기술의 혁신과 산업발전을 모색하였다.

장쑤 의약산업 규모는 중국의 1/10 이상을 차지하며 여러 가지 지표가 중국 선두를 달리고 있다. 련윈강은 장쑤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6개 생물·의약산업기지 중의 하나이다. 중국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2017년 중국약연구개발 생산라인 최고 공업기업 20개에 련윈강은 4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중국공정원 원사 4명, 중국약리학회 이사장 장용샹(張永祥), 중국약리학회 약물연구원 부원장 두관화(杜冠華) 등 전문가와 프랑스, 미국, 호주 등 20여 개 국가의 베테랑 전문가 119명, 의약기업 고위층 경영자들은 생물·의약, 의기계, 정밀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 분야를 두고 선진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업계발전추세를 모색하였으며, 의약산업 혁신요소와 성과 전환을 추진하였다.

'인공지능', 이목 집중

최근에 개최된 난통 차세대 정보기술박람회는 국내외 선진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상품 100여 개를 나란히 선보였다.

"안녕하세요? COOKY예요, 중문 이름은 쿠치(酷奇)이지요 만나서 반가워요!" "같이 춤을 춰요!"

다른 전시구역에서 색상이 화려하고 탱크모양을 한 방폭소방정찰(新微)그룹 총재 친시(秦暎)는 무예(木爺)로봇과 교류하였다. 지문 식별 등 기능을 갖춘 무예로봇은 금융업계의 모든 비현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신장이 약 1m 남짓한 아베타 로봇은 핑크색 모자를 쓰고 '왕눈'을 반짝이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출 수 있으며, 이야기는 물론 게임도 같이 할 수 있었다. 전시구역의 바오펑(暴風)AITV를 향해 오늘의 날씨를 문자 스크린은 곧바로 난통의 날씨를 보여주었다.

다른 전시구역에서 색상이 화려하고 탱크모양을 한 방폭소방정찰(新微)그룹 총재 친시(秦暎)는 무예(木爺)로봇과 교류하였다. 지문 식별 등 기능을 갖춘 무예로봇은 금융업계의 모든 비현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신장이 약 1m 남짓한 아베타 로봇은 핑크색 모자를 쓰고 '왕눈'을 반짝이고 있었는데

주로 화재 진압, 정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석유화학, 가스 등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 적합한바 인명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회의할 때 현장의 음성을 문자로 전환하고 싶다면 IFLY TEK CO.,LTD.(科大訊飛) 전시구역의 모델 상품이 도와줄 수 있는데 해당 상품은 음성을 문자로 전환할 수 있다. "베이징의 내 노래하는 속기사 20명과 시합을 벌였는데 속기사의 정확성은 가장 높아 90%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원고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표준발음을 구사하지만 하면 정확성이 95%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 발전은 우리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중국인공지능학회 이사장인 리더이는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차세대 정보기술은 범부가 만물을 소리 없이 적시듯이 세계를 바꿔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난징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

리교 얼마 지나지 않아 난징예술대 리교 얼마 지나지 않아 난징예술대에 취직하게 되었고 학교 측에서는 약 30명에 달하는 주택을 제공하였다. 수입도 괜찮아서 그는 장기적으로 머물 계획이다.

"저의 박사논문 제목은 『중국인 집단거주지의 문화경관 연구』입니다. 논문을 쓰면서 한국의 수많은 디자이너와 건축가가 건설한 차이 나타나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차이나타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천 교수는 예를 들면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 중국의 문화요소가 많지 않고 중국인들의 습성에도 맞지 않아 일부 중국인은 입주하고 나서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였다. 한국의 차이나타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인이다. 천 교수는 중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통해 중국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중국문화를 한국 차이나타운 건설에 융합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천 교수는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 매주 월·수요일 각각 4시간씩만 강의하면 된다고 하였다. 강의할 때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사용하는데 학생들은 영어듣기능력과 말하기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중국 학생들은 예의 바른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적지 않은 학생의 디자인 수준은 서울대 학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천 교수는 여유시간에 헬스를 하거나 난징의 한국 친구들과 회식을 즐긴다. 또 자신의 연구분야를 열



천현진 교수 최근 모습

천 교수는 기자에게 중국 여자친구를 사귀고 난징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10년, 20년만 더 지나면 중국의 경제총량은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인들도 중국에 와서 일하고 배울 것입니다." 천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꿈을 중국에서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리종장·李崇長 글/사진

장쑤의 한인사회